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48호 2016년

5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작 라00076

발행일 2016년 5월 발행(48호)

발행인 신홍균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리더 칼럼
이슈 진단
연구원소식
발간물안내





“급속한 변화의 시대, 뒷걸음친 공동체 의식”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병철

오늘 우리는 어린 시절 꿈꾸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기의 바둑기사를 무참히 꺾어버린 인공지능 알파고의 출현,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 자동차, 스스로 조립되는 4D 프린팅, 인간 유전자 지도(게놈)의 응용, 로봇 공학의 눈부신 발전 등 기술의 혁신은 당장 내일을 점 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일부는 벌써 신의 영역에 도전해 가고 있다.

이렇듯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몇 가지 큰 사건 사고들과, 그 수습과정에서 우리는 실로 엄청난 손실과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 속에서 필자는 대의와 공동의 이익 보다는 자신과 또는 소수 이해 관계자들의 사익과 편익에 치중된 주장을 만나는 것이 씩 유쾌하지 않다.

서로 다른 이를 설득과 굴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늘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승(합치)보다 협(협치)라는 더 큰 잣대를 만들어 다양성이 한곳으로 녹아들게 만드는 새로운 인문학적 용광로를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겠다. 20대 국회는 이 협치 가능성의 높은 시험대가 될 것 같다.

얼마 전 대학총장과 총리를 역임한 분의 강의에서 우리 교육의 담론이 智德體(지덕체) 순으로 정의되어 뿌리가 약하고 가치의 중심이 혼란 속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지니 하루 속히 體德智(체덕지) 순으로 담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 필자도 이에 무한한 공감을 느낀다.

다양한 기술 혁신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 사이클은 짧아져만 가는데 공동체 정신은 간데없고 오히려 자기편의적 개인화로 시대를 역주행하는 것을 보고 있어 안타깝다. 이웃집에 제사까지 알고 쌀 한줌도 나누는 배려의 옛 선비정신이 좁고 짧아진 時空에 의해 지구촌이 손바닥인데 공동체의 담벼락은 더 높아진 장벽이 되었다. 이제 한류처럼 허물고 부셔 나가야 할 차례가 아닌가.

덕이 부족한 우리 세대가 변화하여 자신의 편익을 나누어 남들과 공유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잘못된 비용효율성 개념이 안전사고의 주범(주범)이다.

비용효율성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사 결정 또는 생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얻어지는 효용의 경제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무한의 가치를 지닌 효용으로 간주하여 아예 비용효율성을 실현시키는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안전제일주의와 비용효율성을 서로 연계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 건설공사의 비용효율성은 건설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 하에서 빠르고 저렴한 값으로 우수한 품질의 SOC 시설과 건축물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선진국의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공사의 비용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건설공사의 비용효율성 개념은 본연의 것과 상이한 점이 없지 않다.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무한의 가치를 지닌 효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규제에 의해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할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비용효율성과 무관한 별개의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즉,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비용효율성의 필요조건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비용효율성을 빠르고 저렴한 값으로 우수한 품질의 SOC 시설과 건축물을 생산하는 것으로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한 공기단축, 저임금 비숙련공 투입, 작업 팀 축소, 부식된 가설재의 재사용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비용효율성 추구행위는 우리의 건설공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건설토양에 뿌려지는 한낱 작은 씨앗에 불과한 안전제일주의가 싹도 나기 전에 말라 죽는 꼴이 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안전제일주의는 커녕 산업화 과정의 유물인 건설 근로자 안전 경시풍조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만연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안전제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설 풍토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비용효율성 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단순히 빠르고 저렴한 값으로 우수한 품질의 SOC 시설과 건축물을 생산하는 것에서 벗어나 건설 근로자의 안전도 더불어 확보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와 같은 건설풍토가 조성되어야만 우리의 건설안전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은 요행이나 대충이라는 나무에서 결코 꽃이 피지 않는 곧은 식물과 같으므로,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종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 구조조정, 골든타임 지났나

최근 조선과 해운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를 열어 기업 구조조정 상황과 계획 등을 논의하였는데, 이날 경기민감업종으로 현재 문제가 많은 조선과 해운만 우선적으로 유지하고 건설업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건설업은 5대 취약업종 중의 하나이고 한계기업이 넘치는 상황으로 작년만큼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어 언제라도 경기민감업종에 포함되어 구조조정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올랐던 업종이 바로 우리 건설업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난 2014년 재무지표 상황을 살펴보아도 종합건설사의 경우 모든 재무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구조조정이 잘못된 탓일까? 종합건설사의 상황이 이러하니 전문건설사의 상황도 비단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6년간 종합건설사 중 부실업체 1618개가 사라졌다. 외형상 구조조정의 결과다. 하지만, 실속 없는 구조조정 덕분에 건설업의 비효율성은 더욱 심해졌으며, 이로 인해 파급되는 전문건설사와 시공인력은 더한 고통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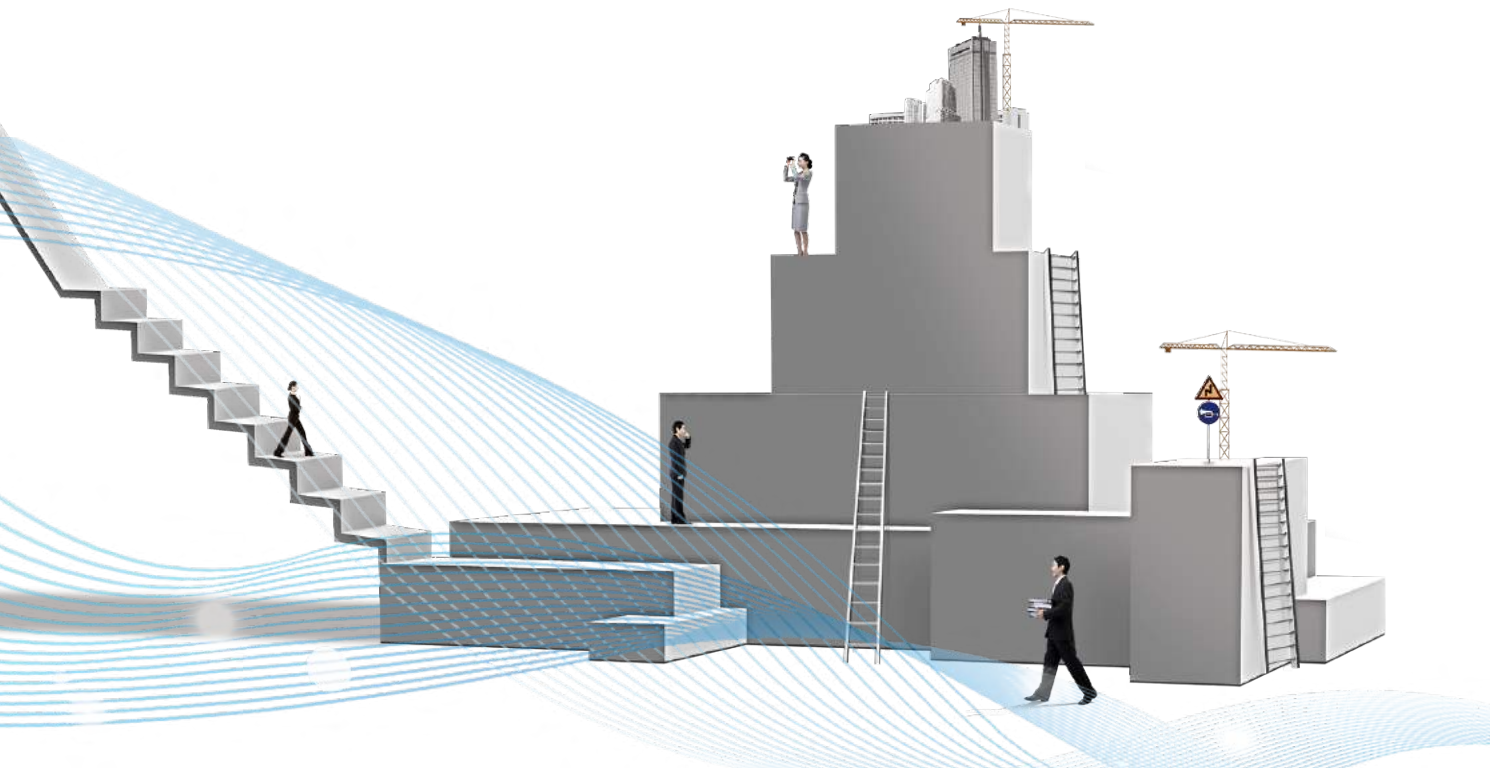
건설업의 하향평준화는 그만큼 건설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양극화가 2008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과 첨단 설비를 적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소수의 대형 기업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졌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른바 한계기업의 수주활동으로 인해 경쟁강도가 그만큼 높아져 저가수주 등의 문제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실화의 정도 또한 심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지게 된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기업이 적정 수주에 문제가 생겨 연속 부실화의 늪에 빠져들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건설업의 주체 모두가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온탕 속 개구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결국 모두가 부실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재무상황이 안정적인 건설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한 시점에서 이른바 좀비기업을 좀 더 빨리 정리하지 못한다면, 2008년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상황처럼 극단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2011년 이후 한국경제의 경기순환상황이 거의 직선이다. 바꾸어 말하면, 아직 호황(2011년 8월)이후 저점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란 것이다. 준비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시기다. 정상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시기로, 실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문제를 잔뜩 키운 후에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직은 골든타임이다.

국토진흥원, “저비용 · 고효율 리모델링 연구단” 과제 계약 체결

- 우리 연구원은 지난 4월 29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주거환경연구사업 중 하나인 “저비용 · 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의 과제수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 동 연구는 2022년까지 총 7년에 걸쳐 진행되는 다년도 과제로, 우리 연구원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 연구단은 이 연구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성남시, 안양시 등)의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결과 적용 및 보급은 물론 국내 건설사 · 리모델링 전문업체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리모델링 업무의 메뉴얼화 및 주택 공급기관 전 분야에 걸친 기준 확대적용 등의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우리 연구원에서는 리모델링 기추진 공법 및 기술 분석과 3개층 증축 리모델링 실증사업 기획(안)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연구책임자: 유일한 연구위원)
- 본 연구수행을 통해 크게는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적화 모델 제안으로 저비용 · 고효율 리모델링 기술의 민간 확대와 더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제성 검증,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시장 확산 및 건설시장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제20대 총선 정당별 건설관련 공약 검토 및 시사점



- 4년마다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약은 각 정당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정책과 개발공약을 국정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향후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각 정당별 건설산업 핵심 공약을 알아보고, 향후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 공통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건설하도급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건설산업 육성 및 혁신을 위한 R&D 사업 제고 등이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 연구원은 본 연구를 통하여 자체적인 산업혁신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기여, 각 정당의 공약 이행 여부 감시 및 공약의 타당성 여부 평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입법 활동에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21호 발간

-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21호가 발간되었다. 건설정책저널은 건설업체 경영자, 정부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들에게 건설산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경영전략 및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분기별(계간)로 발간하고 있다.
- 동 간행물은 건설관련 이슈 등을 담은 논문과 함께 전문건설업 경기동향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BSI)' 등을 수록하고 있다.

〈 건설정책저널 통권 21호 내용 〉



논 단	주택시장 현안진단과 정책방향
	모듈러 유닛 철골공사의 공장생산 프로세스와 세부공정별 작업내용 모니터링 연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시장 전망 및 기업 동향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의 법적 검토
	유후 건설기계 해소방안 검토
	남북한 주택건설협력사업 시행방안 연구
연구리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설동향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및 2/4분기 전망(SBSI) 원내소식